

野 “김재수 장관 자격 없다”... 농해수위 국감장 ‘그림자’ 취급

새누리 불참 ‘반쪽 국감’ 첫날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곳의 상임위는 파행 그 자체였다.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국정감사는 곳곳에서 파행이 현실화되면서 전체적으로 맥 빠진 분위기였다. 파행의 국감에서 ‘민생’을 찾기는 어려웠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새누리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야당 소속 의원의 위원장인 상임위는 26일 오전 10시께부터 속속 개회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의 위원장인 외교통일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등은 야당 의원들만 정상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받았다. 다만, 더민주 조정식 의원이 위원장인 국토교통위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안만 한 채 정회했다.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와 산업통상자원위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국감이 이뤄졌다.

산자위에서는 정부가 철강·조선·해운·석화 산업의 구조조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과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 당정 TF팀 구성과 관련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교문위에서는 유성열 위원장이 해임건의안 표결처리 직전 행정부질문에서 소위 ‘국무위원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데 대해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추궁하기도 했다.

관심을 모은 농해수위 국감장에는 해임건의안의 당사자인 김재수가 10시 정각에 국감장에 출석했으나, 오경태 차관보가 업무보고를 했다. 더구나 야당 소속 농해수위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

장관 제쳐 놓은채 차관에 질의

야당 위원장 상임위만 겨우 개의

교문위 ‘국무위원 필리버스터’ 추궁

에 “김 장관은 더 이상 국무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하면서 김 장관을 제쳐놓은 채 여인홍 차관을 상대로 질의를 벌였다. 다만, 야당 의원들은 김 장관에게 퇴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여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상임위는 위원장들의 불참으로 아예 개최하지 못하고 국감자체가 무산되거나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 의원들은 국감장을 지켰으나, 국민의당 의원들은 중간에 자리를 뜨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는 새누리당 권성동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5시간 만에 종료됐다. 법사위는 현재 일정이 비어있는 10월 12일·14일 중 대법원 국감 일정을 다시 잡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소속의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방위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개최 선언도 하지 못하고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자치부 국감은 위원장인 유재중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결국 개의하지 못하고 정부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도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 끝에 무산됐다.

반쪽 국감으로 파행이 거듭되자 야당 의원들은 분통을 터트리는가 하면 성명 등을 통해 새누리당에 국감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감사가 여야 대치국면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파행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현안 ‘김재수 블랙홀’에 빠져들라”... 수위조정절 나선 野

이상호 “더 이상의 강공은 없다”

박지원 “새 정치 모습 보이겠다”

야권은 26일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국정감사에 착수했으나 각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여론이 어떻게 흐를지 걱정이다. 따라서 야권은 해임건의안 가결이 명분과 절차 등 모든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고 집권 여당의 ‘몽니’에 적극 반박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정국에서 자칫 헛발을 내디뎠다가는 국정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해빙 정국을 위해 대어 수위조정절에는 상당히 신경 쓰는 분위기다.

우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강공은 없다”며 “여야

가 협상하는 데 서로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해임건의안 후속조치는 후속조치대로, 국감은 국감대로 분리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했다. 치열한 수싸움 속에서도 물밑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금대섭 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국회법에 따라 단독 국감을 할 수 있지만, 최대한 대화를 통해 호소하겠다”며 새누리당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런 와중에서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 이면에 의도가 있다는 의구심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민주 김부겸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정치적 공세를 통해 국회 내에서 논쟁 자체를 차단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기류는 비슷하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은 “정치는 자꾸 갈등을 유발해서 안 된다. 갈등을 해소하는 새 정치의 모습을 보이겠다”며 유연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같은 야권의 고민은 ‘반쪽 국감’이 이어질 경우 정부의 실기를 부각해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다. 실제로 국감 파행으로 미르·K스프츠재단 의혹과 정부의 허술한 지진 대응 등 야권에 호재인 이슈가 ‘김재수 블랙홀’로 빨려들어가 조짐을 보인다.

이 때문에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도부가 새누리당과의 물밑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역시 집권여당으로서 국감 포기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적극 협력을 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세균 의장 사퇴할때까지 단식농성”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오른쪽부터)가 26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의원들의 지지방문을 받고 정진석 원내대표, 정갑순 전 국회부의장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다자 대결·3자 대결... 모든 여론조사 반기문 1위 문재인-안철수-박원순 順

추석 연휴 이후 일부 언론의 대선후보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모두 1위를 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현재 거론되는 예비 후보 간 가상 다자 대결을 한 결과 반 사무총장이 27.4%,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16.5%,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8.2%를 기록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 4.4%, 오세훈 전 서울시장 4.3%,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2.8%, 안희정 충남지사 2.5%,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2.5% 등이었다.

새누리당, 더민주, 국민의당 후보로 각각 반 사무

총장, 문 전 대표, 안 전 공동대표를 상정하고 3자 대결을 한 결과, 38.5%, 28.1%, 14.5%로서 역시 반 사무총장이 가장 앞섰다. 이 조사는 지난 23~24일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RDD(임의 번호 걸기)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였다.

이어 매일경제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반 사무총장이 23.7%, 문 전 대표 18.5%, 안 전 대표 10.3%, 박 서울시장 6.0%, 이재명 성남시장 5.1% 등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조사는 지난 19~23일 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30명으로 대상으로

전화, 스마트폰앱, 무선·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다.

또 중앙일보 조사연구팀 조사에서도 반 사무총장 32.7%, 문 전 대표 17.3%, 안 전 공동대표 8.1%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이 조사는 지난 20~21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 062) 228-1199

하나투어 신혼여행 박람회

허니문 박람회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세요!

▶ 기간 : 2016. 10. 8(토) ~ 10. 9(일)

이달의 추천 여행지! 하와이	[프리미엄 로드샵] 하와이 추천상품 안내 하나허니문	
<p>프리미엄 로드샵 [광주총장점] 단독 혜택!</p> <p>① SM면세점 모바일 선불카드 2만원 권 제공</p> <p>② 알로하 테이블 식사권 제공 \$40상당</p>	<p>개주얼 HHW200_G</p> <p>에스톤 와이키키 오아후 6일</p> <p>1,930,000원~</p> <p>현지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p> <p>▶ 매주 토/일/월</p> <p>▶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p> <p>▶ 파파라차 + 특식포함</p>	<p>클래식 HHW200_Y</p> <p>아웃리거 와이키키 오아후 6일</p> <p>2,340,000원~</p> <p>현지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p> <p>▶ 매주 토/일/월</p> <p>▶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p> <p>▶ 엘리버드 / 최대 40만원 할인</p>
	<p>개주얼 HHW204_F</p> <p>하얏트 플레이스 오아후 6일</p> <p>2,160,000원~</p> <p>현지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선택경비 있음</p> <p>▶ 매주 토/일/월</p> <p>▶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p> <p>▶ \$350 상당 아웃렛 투어 포함</p>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함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원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여행상품 내용]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한 인원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시장 등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 /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인 보증보험 22인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 여행 유의 ● 여행 자제 ● 철수 권고 ● 여행 금지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 www.HanaTour.com